12면에서 계속

청주靑州로 옮겼다가는 영주潁州로 옮겨 다스렸다. 죽은 후 문정文正의 시호를 받아 그를 후세에 범문정范文正이라 많이 부른다. 그는 생시에 재고지원才高志遠, 즉 재주가 매우 높고 뜻이 원대하다는 평을 받았는데 늘 천하를 편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소임이라 했으며 선행을 즐기고 베푸는 일을 좋아하여 의전義田, 즉 의장義莊을 설치해 족인을 살린 일이 유명하게 되었다. 원호元昊는 서하西夏 사람으로 본래 이름이 이낭소李諾埽 인데 그 종조부 계봉繼捧이 송나라를 섬겨 황실성씨 조趙로 사성賜姓이 되었으므로 그도 따라 조씨로 개성改姓하여 조원호趙元昊가 된 사람이었다. 그 성품이 웅의雄毅하고 대략大略이 많았으며 그림을 잘 그렸다. 또 효부학曉浮學이라는 것을 창제하기도 하고 중국의 번병藩屛에 한문자漢文字를 통용케 하였다. 그러나 즐겨 송나라에 신하가 되고자 하지 않아 인종仁宗 명도明道(1032 1033) 초에 서하왕西夏王을 습위襲位해서는 보원寶元(송 인종 : 1038 1039) 초에 황제를 참호僭號하고 흥주興州를 도읍삼아 유하有河안팎의 22고을을 거느리고 웅거하였다. 이에 송의 장수 임복任福과 갈회민葛懷敏이 정벌을 나갔으나 크게 패하였다. 원호가 비록 자주 이겼으나 그 군사에 창이創痍 등으로 죽는 자가 절반이나 되니 부득이 화의를 청하였다. 이에 화의를 하고 송에서 그를 하국주夏國主로 봉했는데 이윽고 제국帝國을 칭하던 중 재위 17년에 죽어 시호를 무열황제武烈皇帝라 했으며 묘호廟號는 경종景宗인데 재세에 쓴 연호年號가 현도顯道、개운開運、광운廣運、대경大慶、천수天授、예법禮法、연조延祚 등 일곱 개가 된다.

하송夏 은 송宋나라 강주江州의 덕안德安 사람으로 자는 자교子喬이고 문장이 전아典雅하고 조려藻麗하며 고문古文과 기자奇字에 박학다식하였으며 현량방정賢良方正함으로 천거되어 거듭 관직을 역임하다가 무녕군절도사武寧軍節度使로 옮기고 정국공鄭國公에 진봉進封되었으며 죽어서는 문장文莊의 시호를 받았다. 관직에 있으면서 다스린 성적이 있었고 군사를 거느림에 법도가 있었는데 오직 왕흠약王欽若、정위丁謂와 더불어 붕비朋比가 되어 당세에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나 1백 권의 문집을 남겼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천묘양전기자도千畝良田豈自圖 : 천 묘의 좋은 전답을 어찌 스스로 도모하랴

진시종족편친소盡施宗族遍親疎 : 모두 종족에게 베풀되 친하고 성김 두루 미쳤네

필의승식무타비匹衣升食無他費 : 한 필 옷감 한 말 곡식 다른 데 쓰지 않고

혼장상부역유여婚葬相扶亦有餘 : 혼인하고 장사함에 서로 돕는 것 또한 여유롭게 했네

고중수득삼천견庫中搜得三千絹 : 곳간에서 찾아낸 비단 3천 필을

일일친지진산지一日親知盡散之 : 하룻만에 친지에게 다 흩어 내주니

요보향려조오희聊報鄕閭助吾喜 : 애오라지 향당에서 내 기쁨 도와준 데 보답함이라

상공증불염가사相公曾不念家私 : 상공은 진작부터 가사를 불고하였네

268. 육씨의거陸氏義居

육구소陸九韶는 송宋나라 금계金溪 사람인데 그 집이 여러 대에 걸쳐 한 집에서 의거義居하였다. 의거는 혈육의 친, 즉 육친肉親이 한 집에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 최장자最長者를 가장家長으로 삼아 일가의 일을 청취하여 명령케 하였으며 해마다 자제에게 집안 일을 나누어 맡겨 힘쓰게 하니 무릇 논밭두렁에 관한 것에서부터 조세와 재물의 출납 및 푸줏간과 부엌이며 빈객을 접대하는 일까지 각자 맡아 주장하는 자가 있었다.

육구소는 또 훈계하는 말을 운문韻文으로 만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이 자제 모두를 거느리고 선대의 사당에 가 배알하고는 북을 쳐 울리며 이를 낭송하고 자제는 도열해서 이를 듣게 하였다. 그리고 자제 중에 과실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가장이 무리를 모아 놓고 그 자제를 책망하여 훈계시키고 그렇게 하여도 고치지 않으면 또 모인 자리에서 회초리를 치며 끝내 고치지 않아 용납할 수가 없으면 관부에 고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가게 하였다.

제목 육씨의거陸氏義居는 육씨네 집안이 의리로 동거하였다는 뜻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할호분문박속연割戶分門薄俗然 : 창호를 가르고 대문을 나누는 것 박한 풍속이라

의거육씨사감전義居陸氏事堪傳 : 육씨가 의리로 동거함 전할 만하네

구분직임유가장區分職任由家長 : 직임을 구분해 줌은 가장으로 말미암고

출납승영예망건出納承迎禮罔愆 : 출납하고 맞이해 받드는 예도 허물됨이 없네

운어정녕시훈사韻語丁寧是訓辭 : 운문으로 만든 훈계의 말씀 실로 정녕하고

신흥고격알선사晨興鼓擊謁先祠 : 새벽에 일어나 북소리 울려 선대의 사당 배알하니

문중漢詩 특선순례 ③

權 五 容

아호 樵巖
추밀공파 양촌계 35世
漢城詩社長、陽村紀念事業會 이사장
1913년 癸丑 경기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생
2010년 庚寅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별세

옥로청풍玉露淸風 : 옥구슬 이슬에 맑은 바람

양생칠월화류남凉生七月火流南 : 생량하니 칠월 불볕 남으로 흘러가고
연실연주식만담蓮實妍珠飾滿潭 : 연꽃열매 고운 구슬 연못에 가득
강범요요함영동江帆遙遙涵影動 : 강에 뜬 돛배 아득히 그림자 물에 적시며
근화염염만향함槿花艶艶晩香含 : 무궁화 어여쁜 송이 늦은 향기 머금었네
불승청흥가삼창不勝淸興歌三唱 : 맑은 흥취 이기지 못해 노래를 거듭 부르고
빙득한연주반감憑得閒緣酒半D : 생긴 여가 빙자하여 술도 반쯤 무르익으니
사미회심당가절四美懷心當可節 : 사미四美*를 품는 마음도 시절에 맞춤이라
강호탐경욕안담江湖探景欲安湛 : 강호의 경치나 탐내며 편안히 잠겨보려네
*사미四美 : 네 가지 아름다운 것으로서, 좋은 날, 아름다운 경치, 즐기는 마음, 즐거운 일.

노송老松

송로천심적갑생松老千尋赤甲生 : 소나무 천길로 늙으면 붉은 껍질 생기고
참천백척대광청參天百尺帶光淸 : 하늘 찌르는 백척 높이 맑은 광채를 띠는데
창창밀엽소지영蒼蒼密葉疎枝影 : 푸른 잎 빽빽하나 나뭇가지 그늘 성기고
울울취풍상뢰성鬱鬱吹風爽 聲 : 울밀한 잎 바람 불면 피리 소리 상쾌하네
고령연하반화의高嶺煙霞班畵擬 : 영마루 이내낀 연기에 무늬진 그림만 같고
반근우로사시영盤根雨露四時榮 : 뻗어 서린 뿌리 비이슬에 사계절 우거져
동한경절과릉설冬寒勁節誇凌雪 : 겨울이면 굳센 절개 눈보라 이김 자랑하니
강송청청만고정剛松靑靑萬古貞 : 금강송 푸르고 푸르러 만고에 곧고 곧도다

고지유교원무류固知有敎元無類 : 본디 가르침에 있어 비길 바 없음 알겠는데

수감장신도비이誰敢將身蹈匪彝 : 뉘 감히 제 몸으로 떳떳치 않은 길 밟으리오

269. 문사십세文嗣十世

정문사鄭文嗣는 원元나라 때 무주등州 사람으로 그 집안이 10세를 동거하여 무릇 240여 년에 이르도록 1전의 돈이나 한 자의 비단도 각자가 감히 사사로이 하는 일이 없었다. 정문사가 죽으니 그 종제從弟 대화大和가 집안일을 주관하여 더욱 엄격하게 하되 은혜롭게 하니 집안이 엄숙하기가 관가와 같았다. 자제 가운데 허물이 있으면 머리가 희어 반백이 된 자라도 오히려 매로 다스리고 매양 세시歲時가 되면 대화가 당상堂上에 좌정하여 자여질이 모두 의관으로 성장하고 높고 낮은 안항雁行에 따라 뜰의 좌편에 벌여 섰다가 차례로 나와 절하고 꿇어앉아 술잔을 받들어 헌수獻壽를 하고, 이를 마치면 모두가 엄숙한 얼굴로 공수拱手를 하여 두 손을 맞잡고 오른쪽으로부터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를 보는 자들이 다 차탄하고 흠모하니 여궐余闕이 이를 ‘동절제일가東浙第一家’라 써서 포장褒奬하였다. 대화는 품행이 방정方正하고 부처와 노자老子의 가르침을 받들지 않으면서 관혼상장冠婚喪葬에는 반드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계고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를 자손이 본받아 교화되어 모두가 효도로 삼가고 여러 부녀는 오직 길쌈과 여공女工을 열심히 하되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 나서지 아니하였다. 집에서 말 두 마리를 길렀는데 하나가 나가니 다른 한 마리가 먹지 않는지라 사람들이 이를 보고 효의孝義가 감응한 바라 하였다.

제목 문사십세文嗣十世는 정문사鄭文嗣가 10세를 동거했다는 뜻이다. 정문사는 효행으로 이름있던 정기鄭綺의 후예로 자가 소경紹卿이며 그 사적이 원사元史에 올라 있고 원의 세조世祖 지원至元(1264~1296) 연간에 그 문려門閭가 정표旌表되었다. 여궐余闕은 원나라 여주廬州 사람으로 성은 당올唐兀, 자는 정심廷心이고 추시追謚는 충선忠宣이다. 원통元統(금金 선종宣宗 때 야율유가耶律留哥의 참칭 연호 : 1213~1216) 초에 급제하여 진사進士가 되었는데 진우량陳友諒의 난에 안경安慶을 수호하다가 죽었다. 평소에 경술經術에 유의하여 조예가 깊었고 오경五經에 모두 전주傳注를 붙였으며 전서篆書와 예서隸書에 고아古雅하다는 평을 들었다. 그 서실 이름을 청양산방靑陽山房이라 하였고 청양집靑陽集을 남겼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이이숙숙정연면 怡怡肅肅政連綿 : 즐겁고도 엄숙하게 이어온 것 정녕 연면히 오래요

십세동거이백년十世同居二百年 : 10대가 한 집에 산 것 2백년이 넘는데

복랍수상준례교伏臘壽觴遵禮敎 : 삼복과 섣달에 헌수를 하며 예교를 준수하니

방관책책차군현傍觀 嗟群賢 : 곁에서 보는 현자의 무리 차탄하는 소리 시끄럽네

가법엄은관절동家法嚴恩冠浙東 : 가법이 엄하고 은혜롭기 절동에서 으뜸이요

부준석로상유풍不遵釋老尙儒風 : 석가와 노자 좇지 않으면서 유가의 풍교 숭상하니

제손효근개종화諸孫孝謹皆從化 : 여러 자손 효도를 삼가 모두 교화되고

축물수미역감통畜物雖微亦感通 : 가축이 비록 미물이나 또한 감응이 통했네